

## 吳元煥兄 이 갔구려!

서휴열 (61)

지난해에 만났을 때에도 마음은 그 옛날과 다름없이 씩씩한 젊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감사했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내 아우에게 자상한 친형노릇을 잘 지켜줘서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었네. 그런 중에도 내가 언제 올지 궁금해 하고 옛 同期生들에게 갖는 그리움을 表現할때가 언젠가 하고 있는데 다시 元煥형 만나 懷抱를 풀기 전에 먼저 갔으니 그 안타까움은 그지없네.

뛰어난 두뇌를 가져 醫科大學도 일찍 입학했고, 학교엘 같이 다닐 때도 항상 곧 바르고 學究에 열심히 정진하고, 졸업할 때도 優秀한 성적을 냈을 뿐 아니라 졸업한 後에도 學校 의 그 좋은 자리를 다른 同期生에게 讓步하고 일찍 渡美하여 계획한 整形外科를 선택해서 同期 中에서도 일찍이 New England Medical School 에서 教授職銜을 받아 우리의 자랑꺼리가 되었지. 韓國에서도 뛰어난 先輩와 계속 연계를 갖고 三星病院이 세워졌을 때는 곧 초대받아 New England Medical School 의 자리를 박차고 귀국하여 그 병원에 처음으로 整形外科를 創設하여 과를 이끌면서 後進을 길러 나간 공헌을 했지. 나중에 문제의 허리 때문에 苦痛을 받을 때도 그들 후배의 診察과 治療를 받지 않았는가? 三星病院에서 停年退職할 때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California의 San Diego에 定着하였지. 다친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러면서도 곳곳이 쾌활하게 잘 지냈지.

學生때에도 술, 담배 하지도 않고 오로지 學問에만 정진하였지만 한편 美食家로도 알려졌었지. 다른 사람이 찾을 수도 없는 칠면조 식사를 계절에

맞춰 친구들에게 맛을 보여 주곤 했지. 職場에서 받은 압력을 Golf로 풀었고, 그러면서 결국 그 부문에도 一家見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 많은 재주를 지금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게 되었구려.

바쁘기도한 까닭인지 家庭生活이 꼭 순탄하지만 않았지만도 賢母良妻인 現婦人과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 옆 사람들이 부러워 할 지경이었지. 그 아이들 셋과도 잘 지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가 됐었지. 그들의 설움은 어떻게 되는지? 現婦人의 忠節은 다른 사람들의 模範이 되었을 것이네.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San Diego에 살면서 근처에 있는 同期와 잘 지내고, 열심히 教會에 다니고, 내가 하지 못한 兄노릇을 내 아우에게 쏟아줬는데 이제 형을 잃은 내 아우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은퇴후 同期들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同期의 萬年會長인 姜昌旭형에게서 “돌아온 탕자” 라는 딱지를 받지 않았는가?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좋아하던 Golf 도 포기하고 鬪病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어도 童心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먼저 떠난 친구들과 만나게 됐구려.

좀 더 자주 만나서 옛 이야기도 나눴으면 하지만 元煥형은 이미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형과 지난 追憶을 더듬으며 형을 그리워하게 되었구려.

삼가 冥福을 비네.

裕林徐休烈 드림